

『金匱要略』의 四肢病에 대한 研究

劉宰暻^{*}·李正泰^{**}·尹暢烈^{*}

關於『金匱要略』中四肢病的研究

劉宰暻^{*}·李正泰^{**}·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通過對『金匱要略·跣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蛔病脈證治』中四肢病的研究, 得出如下結論:

1. 跣蹶病是指足背強直使行動不便的疾病. 其致病原因是太陽經脈受損. 治法是選太陽經穴中位於小腿部的合陽或承山等穴, 通過鍼刺舒緩筋脈.
2. 手指臂腫是指手指和手臂部時時腫痛, 振顫, 以及引起牽動身體肌肉的疾病. 本病的病因是風濕痰飲阻滯關節經絡. 因此, 治法是祛風除痰, 處方使用藜蘆甘草湯. 後世醫家應用導痰湯或指迷茯苓丸治療該證.
3. 轉筋是指病人四肢突然發生痙攣?痛爲特徵的疾病. 本病多因濕濁內阻或鬱滯日久化熱, 熱傷津液所致; 或者吐瀉較甚, 損傷津液而致; 或素體陰液, 津液, 氣血不足而致; 或突受寒冷邪氣, 筋脈凝滯, 筋脈失其溫煦和濡養所致. 本篇中治療方法上選用鷄屎白散, 以瀉其濕濁.

I. 緒論

張仲景의 대표적 저서인 『傷寒雜病論』 중 雜病 부분에 해당하는 『金匱要略』은 모두 二十五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外科질환에 관한 것이 一篇이며 婦人科와 有關한 것이 三篇, 急救 및 食禁 등과 有關한 내용이 三篇이며 기타 十八篇은 모두 內科病의 辨證治療에 관한 것이다.

그 중 十九篇인 「跣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蛔虫病脈證治」은 四肢의 疾病에 해당하는 跣蹶, 手指臂腫, 轉筋 이외에 陰狐疝과 蛔虫病에 관하여 각기 다른 症候를 一篇으로 묶어 各各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跣蹶은 足踝關節以下の 足背가 強直되

거나 혹은 발을 앞으로 뺄 수는 있으나 뒤로 당기기는 困難한 足部疾患을 말하며, 手指臂腫은 病人의 手指와 臂部에 때때로 腫脹疼痛, 振顫이 發現되는 病症을 말한다. 轉筋은 四肢筋脈에 突然 發生하는 痙攣掣痛의 特徵을 가진 病症이며, 陰狐疝은 男性의 陰囊이 한쪽이 크고 다른 한쪽은 작으며 때로는 위로 드러나고 때로는 아래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는 病症을 가리킨다. 蛔虫病은 病人이 간혹 臍腹部의 劇烈疼痛을 일으키며 甚하면 或 蛔虫을 吐出하는 特徵을 가진 一種의 腸道寄生蟲病을 말한다.

이에 筆者는 『金匱要略·跣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蛔虫病脈證治』의 內容 중에서 四肢病에 해당하는 跣蹶, 手指臂腫, 轉筋에 관하여 研究하고 考察하였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 교신저자 윤창열,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5년 12월 2일

II. 研究方法

본 논문은 『金匱要略』의 原文 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으며, 原文에 批를 달고, 原文·解釋·校勘·字句解의 순으로 研究하였다. 또한 每篇마다 考察을 두었다.

가. 原文은 中國中醫藥出版社의 『金匱要略校注語譯』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본문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고, 各 條文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하게 하였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되 現代化한 것도 있다.

라. 解釋은 原文의 解釋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마. 『關注』는 原文과 注釋文이 混合되어 있어서, 原文은 ()로 표시하였다.

바. 程林의 『金匱直解』는 구하지 못하여 다른 책에 引用된 부분을 再引用하였다.

사. 比較적 近代 中國에서 나온 書籍은 各家注에서 除外하였다.

아. 校勘·字句解·各家注 등이 필요 없거나 注釋書의 原文에 없는 부분은 제외시켰다.

자.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로, 脚註는¹⁻³⁾ 등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고, 校勘과 字句解는 原文에 표시하지 않았다.

III. 研究內容

師曰 病趺蹶에 其人但能前하고 不能却하면 刺臑入二寸이나 此는 太陽經傷也임새다

【解釋】

스승이 말하기를 趺蹶을 앓는 患者는 주로 步行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발을 잘 뻗을 수 있으나 뒤로 당길(오무릴) 수는 없어 곤란을 느낀다. 이것은 太陽經이 損傷을 받았기 때문으로서 장단지에 二寸쯤 깊게 刺鍼하도록 한다.

【校勘】

病趺蹶 : 『金鑿』에서는 “趺”가 “跌”로 되어 있다. 살펴 보건데 “跌”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

【字句解】

病趺蹶 : 跌는 跗와 같으며 脚背를 말한다. 蹶은 『設文』에서는 “僵”字로 解釋하여 僵直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다. 『文選·射雉賦』의 注에는 “蹶은 走也”라고 나와 있다. 『爾雅·釋詁』郭注에 보면 : “蹶은 搖動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趺蹶이란 발등이 僵直되어 運動障礙가 생긴 疾病을 말한다. 이후의 “能前, 不能前”이란 문장은 바로 “跌蹶”을 묘사한 것이다.

却 : 後退하는 것을 말한다.

刺臑 : 臑은 『設文』에 胛腸, 즉 小腿肚를 말한다고 하였다. 臑은 足太陽膀胱經의 承筋穴이 있는 곳으로 脛後의 발뒤꿈치에서 위로 7촌에 있으며 刺鍼할 수 없는 곳이다. 『素問·刺禁論』에 보면 “刺臑腸內陷爲腫”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二寸을 刺入한다는 것은 太陽經이 傷한 것을 말한다.

【考察】

本 條文은 趺蹶의 疾病과 證治에 대해 論述한 것이다. “此太陽經傷也”라는 句節은 마땅히 “刺臑入二寸”이라는 句節 앞에 나열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倒置法이다. 病者는 趺蹶病을 얻은 것이다. 趺蹶病은 발등이 强直되어 運動障礙가 생기는 疾病이다. 典型的인 症狀은 病者가 오로지 앞으로만 나갈 수 있고 뒤로는 후퇴할 수 없다. “太陽經傷”은 趺蹶의 病因이다. 人體의 經脈 중 陽明은 몸의 前面을 行하며 太陽經은 몸의 後面을 行한다. 太陽經에 損傷이 생기면 끌고 당기는 것이 순조롭지 못하여 趺蹶이 나타나 오직 앞으로만 行하여 後退하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 病의 治療法은 臑部에 鍼刺하라 하였으나 症狀이나 刺鍼 部位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반드시 缺文이 있을 것이다.’라고 古註에 기록된 부분이 있다. 歷代 注釋家 중의 한 명인 周揚俊은 臑部를 承筋이라고 名하기도 하였다. 文章 중에 “二寸”이라는 것은 아마도 옛날과 지금의 尺寸이 다르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는 八分이나 一寸을 찌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論注』에서 徐彬은 “人身의 陽明脉絡은 前面에

있고, 太陽脈絡은 後面에 있다. 그러므로 陽明經絡의 氣가 旺盛하여 無病하면 능히 앞으로 걸을 수 있고, 太陽經絡의 氣가 旺盛하여 無病하면 능히 뒤로 걸을 수 있다. 지금 趺蹶하여 平人과 같이 앞으로는 나아갈 수 있으나 後退할 수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臑腸에 二寸 刺入한다. 대개 臑腸이라는 것은 太陽經이 지나는 곳인데 邪氣가 太陽經의 合陽과 承筋 사이에 聚하였으니 반드시 刺鍼하여 瀉하여야 한다. 이를 일러 太陽經이 傷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太陽經의 經穴은 매우 많은데 반드시 臑腸에 刺鍼한다는 것은 대개 臑腸은 小腿肚로 본다 陽明에 屬하고 太陽經이 여기를 지나므로 그곳을 刺鍼하여 太陽經과 陽明經의 氣가 서로 通하게 되면 앞뒤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다.

『二注』에서 周揚俊은 “臑은 承筋을 말하며 上肢의 起肉處로 腳跟에서 위로 七寸하여 臑中の 陷한 곳이 그곳이다. 刺鍼法에서는 不可刺라고 하여 或 刺轉이 深하여 그 經絡을 傷하게 되면 앞으로는 갈 수 있으나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綜合하여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病名含義	足部僵硬, 運動障礙的疾病
病人病機	太陽經傷
症 狀	其人但能, 不能却
治 法	刺臑入二寸(承筋)

病人常以手指臂腫動하고 此人身體瞶瞶者는 藜蘆甘草湯主之라

藜蘆甘草湯 方未見

【解釋】

患者의 손가락이며 팔이 항상 부어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더욱이 身體의 肌表도 가볍게 痙攣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藜蘆甘草湯으로써 다스린다.

處方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校勘】

此 : 『二注』에서는 “其”字로 되어 있다.

【字句解】

以 : 陸淵雷가 말하길 “以’字는 衍文인 듯하

다.”라고 하였다. 살펴 보건데 : “以”는 語助辭로 뜻은 없다. 常以란 즉 恒常이란 뜻이다.

腫動 : 陸淵雷는 “腫動”은 不詞이라고 여겼다. 사실 “動”은 곧 “痛”으로 “動”과 “痛”은 서로 通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風이 勝하면 動한다.” 『類說』卷三十七에서는 “動”이 “痛”으로 되어있다. 手指臂가 腫痛한 즉 可解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瞶瞶 : “瞶” 肌肉이 動하는 모양이다. 『素問·氣交變大論』에서는 “肌肉瞶酸”이라고 하였다. 二形이 말하길 : “무릇 濕痰이 關節에 凝滯하면 곧 붓는다. : 風邪가 經絡을 襲傷한 즉 動한다. 手指臂가 腫動하고 身體가 瞶瞶한 것은 風痰의 病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 條文은 손가락과 팔, 어깨가 붓고 뛰는 證治에 관해 論述한 것이다. 손가락과 어깨가 붓고 뛰는 症狀은 주로 손가락과 어깨의 關節이 붓고 떨리며 身體肌肉이 微微하게 뛰는 것으로 주로 表現되고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 “風이 勝하면 動한다.”라고 하였고, 『三因方』에서는 “痰涎이 胸膈 上下에 머물면 變하여 여러 병이 생기는데 손과 발, 어깨와 등이 당기고 아파 걸어 다니기 쉽지 않다.”라고 하여 이 本證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本病의 주요 原因은 風痰이 經絡에 停滯되어 일어난 것이다. 痰이 滯한 즉 腫脹하게 되는 것이다. 風이 經絡을 傷하면 身體肌肉이 뛰고 움직이게 된다. 治療方法으로는 마땅히 風痰을 涌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方을 보지 못했지만 다만 藜蘆, 甘草의 藥效로 보아서, 藜蘆는 吐를 誘發시키고 甘草는 和中한다. 따라서 이것은 風痰을 吐해내는 方劑에 屬한다. 風痰이 去란 즉, 여러 병이 낫게 된다. 이것은 原因療法이다. 臨床에서는 이러한 病證에 導痰湯(膽星, 枳實, 半夏, 陳皮, 茯苓, 生薑, 大棗)이나 或 指迷茯苓丸(半夏, 茯苓, 枳殼, 風化硝, 薑汁)을 사용하는데 效果가 좋다.

이에 대한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論注』에서 徐彬은 “人身 중 四肢는 脾에 屬하

나 肌肉之氣는 陽明에 統率되며 足은 足陽明에 屬하고 手는 手陽明에 屬한다. 만약 手指臂가 腫動한다면 이는 手陽明에 痰氣가 壅閉한 것으로 몸이 悶悶하는 것이니 肌肉間의 陽明之氣가 不運하여 肌肉이 腫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心典』에서 尤怡는 “濕痰이 關節에 凝滯된 즉 腫하고 風邪가 經絡을 襲傷한 즉 動한다. 手指臂가 腫動하고 身體가 悶悶하는 者는 風痰이 膈에 있다가 肢體로 功走한 것이다. 陳無擇은 痰涎이 胸膈上下에 있으면 變하여 諸病을 生한다고 하였으니 手足項背가 牽引釣痛하고 走易가 不定한 것이 이것이다. 藜蘆는 上膈의 風痰을 吐하고 甘草 역시 能히 取吐하니 처방이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대략 湧劑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藜蘆甘草湯은 風痰의 證을 治療한다. 本方證은 風痰在膈, 痰滯關節한 것으로 局部腫脹이 나타난다. 經絡이 風에 傷하여 身體가 悶動振顫하면, 本方으로 涌吐導痰하여 治療한다. 方中에 藜蘆는 性寒有毒하여 風痰을 涌吐시키고, 甘草는 和中하여 藜蘆의 毒을 제거한다. 二味相合하면 涌吐의 效능이 增強된다. 本方은 痰涎에 속한 질환으로, 일반 祛痰劑가 效과가 없고, 신체가 强壯한 사람에 對해 活用한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고, 비교적 약한 사람은 격일에 한 번 씩 공복에 복용한다. 복용 후 대량의 痰涎을 吐出하면 다시 증상을 고려해서 健脾祛痰 혹은 消熱祛痰하여 治療 效과를 확실히 한다.

歷代로 本方證에 藜蘆가 有毒하여 導痰湯(半夏, 陳皮, 茯苓, 甘草, 陳膽星, 枳實, 生薑, 大棗)이나, 指迷茯苓丸(半夏, 茯苓, 枳殼, 風化硝, 薑汁)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效과가 좋다. 요약하면 本方은 風痰을 治療한다.

이상을 綜合하여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病名含義	手指臂部關節腫脹, 顫動, 或身體肌肉牽動的病證
病人病機	風痰阻于經絡
症 狀	病人常以手指臂腫動, 此人身體悶悶者
治 法	涌吐風痰
方 藥	藜蘆甘草湯 藜蘆 : 涌吐風痰 甘草 : 和中

轉筋之爲病은 其人臂脚直하고 脈上下行微弦하고 轉筋入腹者는 鷄屎白散主之라

鷄屎白散方 鷄屎白이라

上一味를 爲末하여 取方寸匕하여 以水六合으로 和溫服이라

【解釋】

轉筋의 病은 手足의 筋肉이 强直하여 屈伸할 수 없고 脈은 寸口에서 尺中까지 直으로 힘이 있고 조금 弦을 나타낸다. 轉筋의 땅김이 腹部에 까지 미친 경우에는 鷄屎白散으로써 주로 다스린다.

鷄屎白散方 鷄屎白

以上 一味를 粉末로하여 한 손갈을 물 六合에 섞어서 溫服한다.

【校勘】

之 : 『脈經』卷八第四와 『證類本草』卷十九 “黃雄鷄”條 『圖經』張仲景을 인용하면 둘 다 “之”字는 없다.

者 : 『脈經』에서는 이 字가 없다.

鷄屎白 : 藥量이 없다. 『總錄』卷四十 『霍亂轉筋』의 鷄白湯方에서는 “炒, 一兩”의 三字가 補充되어 있다.

取 : 『證類本草』중 『圖經』張仲景을 인용하면 “量”字로 되어 있다.

溫服 : 『證類本草』중 『圖經』張仲景을 인용하면 “服”아래에 “差”字가 있다.

【字句解】

其人臂脚直 : 吳謙은 “臂’는 ‘背’와 같다. 背脚直은 다리와 등이 强直하여 屈伸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살펴보면 “臂”와 “背”가 서로 通한다는 것엔 確證이 없다. 『病源』卷二十二 ‘霍亂轉筋候’에서 말하길 : “冷氣가 筋을 搏하면 筋이 轉하게 된다. 冷氣가 足의 三陰三陽에 入한 즉 脚의 筋이 轉한다.; 手의 三陰三陽에 入한 즉 手의 筋이 轉하게 된다. 冷氣가 入한 筋을 따라서 筋이 轉하게 되니 轉하는 것은 모두 邪氣인 冷氣가 그 筋을 擊動시켜 移轉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한 즉 轉筋은 足部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臂部에서도 역시 생길 수 있다.

脈上下行 : 李炡이 말하길 : “上下行하는 것은 脈이 와서 손가락에 搏하는 것이 和柔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寸關尺 三部脈이 弦直하고 有力하여 柔和한 象이 없는 것을 말한다.

微弦 : 李彥이 말하길 : “弦脈은 肝에 屬하고 風邪가 經絡을 襲傷하면 臂脚이 強直되며 轉筋이 入腹하게 된다.”

轉筋入腹 : 痙攣疼痛이 양 다리에서부터 小腹에 까지 끌어당기는 것을 말한다.

【考察】

本條文은 轉筋의 證治에 대해 論述한 것이다. 轉筋, 俗稱 抽筋으로 一種의 筋脈攣急으로 四肢가 당겨 痛症이 생긴 병증이다. 특히 下肢 중아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症狀이다. 轉筋의 部位는 일반적으로 下肢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腓腸肌肉에서 痙攣이 발생하여 심할 때에는 양쪽 다리에서부터 少腹까지 당겨 痛症이 발생한다. 主要 症狀은 팔과 다리가 強直되는 것으로 上肢 팔 부위 或 下肢의 중아리 부분에서 경련이 발생하여 屈伸하지 못한다. 그 脈은 上下로 行하는데 微弦하고 強直하여 柔和함이 전혀 없는 脈象이다. 痙病의 脈象과 “直上下行”하는 것이 同一하다.

轉筋은 霍亂吐瀉의 심각한 病證에서 볼 수 있다. 轉筋의 原因은 體液消耗가 많아 筋脈의 陽氣의 溫煦와 陰液의 濡養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本條의 轉筋은 濕濁이 熱로 化하여 陰을 傷했기 때문이다. 治療法은 濕濁을 瀉하고 淸熱시키는 것이다.

鷄屎白의 性は 寒하고 下氣시켜 去濕通利便한다. 『別錄』에서는 鷄屎白이 轉筋을 治療하고 利小便한다고 하였고 『素問』에서는 鷄屎體를 써서 鼓脹을 치료하고 大小便은 通하게 한다고 하였다. 本證의 轉筋은 濕濁이 熱로 化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本處方으로 疾病의 原因을 제거하는 것이다. 後世에서는 王孟英의 蠶矢를 써서 熱性霍亂轉筋을 치료했는데 이는 本處方の 影響을 받은 것이다. 熱霍亂은 體液消耗가 過多하여 轉筋이 생긴 것으로 王孟英의 蠶矢湯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寒性霍亂은 위로는 吐하고 아래로는 泄瀉하는 것으로 體液消耗가 過多하고 陽氣가 亡失하여 筋脈을 熙養하지 못하여 생긴 轉筋으로 通脈四逆湯과 白通湯 등을 써서 치료할 수 있다.

轉筋은 霍亂吐瀉의 심각한 病證에서 볼 수 있다. 轉筋의 原因은 體液消耗가 많아 筋脈의 陽氣

의 溫煦와 陰液의 濡養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本條의 轉筋은 濕濁이 熱로 化하여 陰을 傷했기 때문이다. 治療法은 濕濁을 瀉하고 淸熱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論注』에서 徐彬은 “轉筋病은 대개 土가 水를 安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臂脚이 強直한 則 風邪가 脾에 浸淫한 것이다. 脈이 上下로 行하는 것이 微弦한 것은 瘧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本義』에서 魏荔彤은 “轉筋의 病 風寒이 外襲하여 下部가 虛熱한 것이다. 진찰하건데 病人은 臂脚이 強直하고 脈이 上下로 行함이 微弦하다. 弦이라는 것은 곧 緊한 것이다. 風寒이 들어와 遂道가 空虛해져 전혀 和柔의 象이 없으니 또한 痙病 中에서 直上下行하는 뜻과 같다. 風寒의 邪氣가 入하여 熱로 變해 營血을 消耗하면 經脈이 直勁된다. 轉筋은 본디 膈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위로 少腹에 연결되어 腹中으로 入하는 者는 邪熱이 上行하여 肢股로부터 腹裏로 들어간 것이니 病이 심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鷄屎白散은 轉筋의 證을 治療한다. 轉筋은 抽筋이라고도 하는데 四肢가 拘攣作痛하는 것을 말한다. 그 病變부위는 下肢에 많고, 증상은 小腿部肌肉痙攣이 주로 나타난다. (腓腹筋) 拘急한 象으로 勁急強直하며, 脈은 柔和하지 않고 “直上下行”하는 痙病의 脈象이 나타난다. 病이 重할 때에는 그 痙攣이 兩足으로부터 少腹部까지 牽引作痛하는데 이것을 轉筋入腹이라 한다. 轉筋의 病因은 風熱로 耗傷津液하여 筋脈失養한 것으로, “諸暴強直, 皆屬于風, 諸轉反戾, 皆屬于熱”이라 하였다. 또한 濕濁化熱로 風이 動하거나, 熱傷陰血하여 筋脈失養, 拘攣不舒한 것도 轉筋의 原因이 된다. 따라서 祛風除熱, 通利大小便하는 本方으로 治療한다. 方中에 鷄屎白은 性이 苦鹹微寒하고 無毒하여 祛風淸熱, 通利大小便, 下氣消積하여 그 病因을 瀉한다. 그러므로 津液을 회복하고 筋脈이 濡養을 얻어 痙攣이 자연적으로 낫게 된다. 요약하면 本方은 風熱로 耗傷津液하여 筋脈失養한 轉筋을 治療한다.

이상을 綜合하여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病名含義	筋脈拘攣作痛證
病人病機	濕濁化熱傷陰, 筋脈失養
症 狀	轉筋之爲病, 其人臂脚直, 脈上下行, 微弦, 轉筋入腹者
治 法	祛濕通利二便
方 藥	鷄屎白散 鷄屎白 : 祛濕清熱, 通利大小便, 下氣消積, 瀉其致病之因

IV. 結 論

『金匱要略·趺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蛔虫病脈證治』중 四肢病에 관한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趺蹶病은 足背가 強直되어 行動이 不便한 疾病을 말한다. 病因은 太陽經脈이 損傷을 입은 所致이다. 治法은 太陽經穴 중 장단지에 있는 合陽이나 承山 等穴에 刺鍼함으로써 筋脈을 舒緩한다.
2. 手指臂腫은 손가락과 팔 부위가 때때로 붓고 아프며 아울러 振顫과 身體肌肉의 牽動을 發生하는 疾病을 말한다. 本病의 病因은 風濕痰飲이 關節經絡에 阻滯한 所致이다. 따라서 治法은 祛風除痰하며 處方으로는 藜蘆甘草湯을 사용한다. 後世의 醫家들은 導痰湯이나 或은 指迷茯苓丸으로써 이 證을 치료하였다.
3. 轉筋은 病人의 四肢에 突然히 痙攣掣痛이 發生하는 특징을 가진 疾病이다. 本病은 대부분 濕濁이 內阻하거나, 鬱滯가 오래되어 熱로 化하고, 그 熱이 津液을 損傷하여 생긴다. 或 吐瀉를 심하게 하여 津液이 損傷되어 생기기도 하며, 본디 身體陰液, 津液, 氣血이 不足해서 생기거나, 或은 갑자기 寒冷한 邪氣가 筋脈에 凝滯되어 筋脈이 溫煦와 濡養을 받지 못하여 생기기도 한다. 本篇에서는 治療方法으

로서 鷄屎白散으로 濕濁을 瀉하였다.

參 考 文 獻

1. 高學山, 金匱要略脈證治療,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2. 郭秀梅 : 日本醫家金匱要略注解輯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丹波元胤: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朴憲在譯註 完譯: 金匱要略, 書苑堂, 1978.
8. 範式則: 金匱辨解(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9. 孫思邈: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0. 徐彬: 金匱要略論注(中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1987.
11.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二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2. 楊醫亞: 金匱中醫自修讀本, 北京,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3. 嚴鴻志: 金匱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4. 蘇寶剛: 金匱要略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5. 葉子雨: 金匱要略闕疑(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7.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補社, 1983.
18. 王玉興: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 李彤: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0.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1.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22. 李東建: 國譯 金匱要略, 書苑堂, 1996.
23.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4.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5. 俞嘉言: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績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26. 張志聰: 金匱要略注(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7. 曹家達: 金匱發微(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28. 朱光被: 金匱要略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29.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0.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7年.
31. 陳伯未: 金匱要略類病釋(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33. 黃元御: 金匱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